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 한덕수 국무총리, 만학도를 위한 청암중고 졸업식에서 밝혀
- 이르면 내년부터 교직원 처우 및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202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 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 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퍼센트** 사이로 낮고 학교간 차이도 크다.
 - 또한 **학교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한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오늘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출범 2년차인 **2023년 신규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 현직 총리 “학평” 졸업식에 참석 사례(2007년 한명숙, 2010년 정운찬)

- 붙임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요 1부.
- 2. 청암중·고등학교 현황 1부.
- 3. 졸업생 수기 사례 2부.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책임자	과장 오영곤 (02-3778-3440)
		담당자	전문위원 권진수 (02-3778-3561)
담당 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윤정 (044-203-6383)
		담당자	서기관 이연주 (044-203-6384)



□ **개요**

- (제도목적)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 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 1986년 무인가로 야학이나 청소년학교 형태로 운영된 시설을 지정

- (설립주체) 학교법인, 공익재단법인, 개인 등

※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및 공익 재단법인이나, 기존('08년 이전) 설치 시설에 한해 개인소유 시설 존치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31조

·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가능

· 이 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

- (수업연한 등) 정규학교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하여 학칙으로 정함

※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등과정은 2년, 중·고등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 (수업료) 초등·중학 단계는 무상(시·도교육청 지원), 고등학교 단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원(시·도교육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23.4월 기준)

- **학교 수 및 학생 수**

학교 수(교)					학생수(명)				
초	중	고	통합(초중고2, 중고14)	계	계	남	여	18세 이하	성인
2	4	20	16	42	18,709	3,714	14,995	4,636	14,073

- **교직원 수(명)**

교장	교감	교사	직원	계
36	28	828	171	1,064

 **일반 현황**

(2023. 4. 1.기준)

위 치	설립자 (교장)	시설등록일 (학력인정 지정일)	교직원	학기제	학급	학생수
노원구 중계로 244	추상욱 (추세영)	2000.10.26.	45명 (교사37, 직원8)	중-3학기제 (2년제)	16	622
				고-3학기제 (2년제)	16	610
				계	32	1,232

설립자 추상욱 약력

- * 고려大 교육학 석사, 경기大 행정학 박사
- * (전) 애덕잘살기학원 설립자 겸 교장
- * (전) 청암 고등공민학교 설립자 겸 교장
- * (현) 청암 예술학교 설립자
- * (현) 청암 중·고등학교 설립자

교장 추세영 약력

- * 고려大 교육학 석사
- * (현) 북부지청 범죄 예방 위원
- * (현) 청암중·고등학교 교장

● **고등학교 3학년 2반 정**(73세)**

저는 20세에 결혼하여 28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8세, 5세의 두 아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미싱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친정아버지도 8년간 모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인해 50세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여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수술도 어려워 희망 없이 항암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암 학교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학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를 돌봐주어야 하여 망설이다가 4년 전 용기를 내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작년 여름까지 계속해서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바쁘게 살고 싶어 시니어클럽에 지원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청암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졸업을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 판정을 받았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졸업과 졸업장을 손에 들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시한부 같은 인생이지만 함께해 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 고등학교 3학년 8반 나**(61세)

2015년 둘째 아들이 시각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임용시험 통과하여 2016년 3월에 수락중학교 영어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시각장애 1급, 후천적 전맹으로 혼자서 새로운 길이나 환경에 적응이 필요하여 남편과 상의하여 충남 보령 천북에서 농사짓고 살던 저는 아들의 출근 퇴근과 일상생활을 돌보기 위해 주중엔 서울에 있고 주말에 시골에 가서 남편과 같이 농사일을 병행하기 시작했고 평소에도 하지 못 한 공부를 하고자 저의 소망을 가족에게 얘기했으며 기회가 되면 학교를 다닐꺼라 하던 중 2019년 청암 중고등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고 청암의 문을 두드리니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2020년 3월 5일부터 중학교를 시작으로 선생님과 학우들과 정말 신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아들 출근 시키고 나도 학교 가고 참으로 꿈만 같은 일상이 너무나 감사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출석하였고, 고1 때의 경주 수학여행과 고2 때의 여수 수학여행 또한 작년 가을 학교 축제 등 어렸을 때 꿈꿨던 모든 일을 비록 늦게 학교 왔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시골에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와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즐겁게 다녔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 돌아보니 학교에서 만난 친구 학우님들 정말 귀한 인연으로 만나서 4년 동안 서로의 기쁨과 아픔, 상처 등 모두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졸업하면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니다. 대학을 향해 새로운 배움은 끝이 없기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청암학교 선생님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수많은 고충이 있었을 줄 압니다.
 졸업생들이 학업을 마치실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웃고 울며 고생해온 가족들과 선생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과 고락을 함께 한 가족과 교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 시절부터 남다른 뜻을 가지고 야학을 열어
 오늘의 청암중고등학교를 세우신
 추상욱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만학도 1만4,000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소중한 결단에
 저희들 모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치시며 좌중의 박수 유도)

졸업생 여러분,

흔히 옛말 그른 것 없다고 하지만
 ‘배움에 때가 있다’는 말만큼은 확실히 틀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다보니
 배움과 사랑과 노력에는 때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넉넉한 집에 태어나 부족함 없이 공부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들이 학교 갈 때 일해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남보다 어려운 형편 탓에 남보다 일찍 생업에 뛰어들어
학교에 다니는 또래를 부럽게 바라보며
말못할 설움에 잠긴 기억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설움을 설움으로 마냥 내버려두지 않고
배울 기회를 찾아 정진한 결과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졸업장은
단순히 학업 성취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모든 굴곡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자기 몫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학부모가 되어 여러분을 응원해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 분들도
여러분을 그 어느 부모님보다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배움과 노력에는 따로 정해진 때가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르침이야말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앞서,
여러분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수 개월 이상 고민했습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한 다른 많은 사정으로
배울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분들이
충분히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청암중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일반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 운영비도 현실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들은 물론,
전국에 계신 평생교육 선생님들과
관련 기관 설립자,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정부가 드리는 감사와 축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 덕 수